

〈孟子〉에 나오는 ‘能, 可, 可以’의 가능 조건에 대하여

허 성 도*

1. 서론

본고는 〈孟子〉에 나오는 ‘能, 可, 可以’가 나타내는 가능 실현의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된다. 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성격을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각 언어사용자의 가능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말에 나타나는 가능의 성격을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말에서는 ‘-수 있다’로 가능이 표시된다. 다음을 보자.

(1) 나는 지금 이 기계를 고칠 수 있어.

(1)의 ‘-수 있다’는 주어의 능력을 표시한다. 이 능력의 소유주는 주어이다. 이 능력의 발생 조건은 문장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주어의 고유 능력이다. 이 경우의 고유 능력이란 천부적으로 주어진 능력과 함께 어떤 시점에서 주어가 소유하게 된 능력을 말한다. 이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능력은 주어 내부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고유 능력은, 전적으로 주어의 의도에 따라 발생한다. 본고는 이러한 고유 능력을, 주어의 내부 조건에 의한 능력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능력의 소유주가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며, 이 능력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된다.

다음을 보자.

(2) 비가 충분히 왔고, 종자가 도착했으므로 오늘은 씨를 뿌릴 수 있어.

(2)의 ‘-수 있다’가 나타내는 가능 조건은 외부에서 제공된다. 이 조건은 주어의 고유 능력과 무관하다. 본고는 이와 같이 외부 조건에 의하여 나타나는 능력을, 외부 조건에 의한 능력이라고 부를 것이다.

(3) 그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4) 저 구름을 봐, 오후에는 비가 올 수 있어.

(3)은 그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단언인지, 아니면 추정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추정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4)는 명확하게 추정을 나타낸다. 다시 다음을 보자.

(5) 너는 할 일을 다했으니 집에 갈 수 있어.

a. 정말 가도 되는 거야?

b. 가도 된다면 가야지.

(5)에 대한 응답 (5ab)를 보면, 이 경우의 ‘-수 있다’는 허가를 나타낸

다. 이 경우에 허가의 조건은 외부에서 제공된다.

우리말 ‘-수 있다’의 기능은 경우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6) 너는 모든 실기 과정을 마쳤으니 이제 이 기계를 만질 수 있어.

(6)의 ‘-수 있다’는 능력, 추정, 허가를 각각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는 우리말 ‘-수 있다’가 능력, 추정, 허가를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의 ‘can’도 이러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7) Can you lift the box?

너는 그 상자를 들어올릴 수 있니?

(8) The story cannot be true.

그 말은 정말일 리가 없다.

(9) You can go home now.

너는 이제 집에 가도 좋다.

위의 (7)은 능력, (8)은 추정, (9)는 허가를 나타낸다. 이는 영어에서도 ‘가능’이라는 개념이 능력, 추정, 허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고대한어 ‘能, 可, 可以’가 나타내는 가능의 본질적 기능은 무엇일까?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

첫째, 우리말과 영어에서 가능을 나타내는 어휘가 능력, 추정, 허가를 나타낼 수 있다면, 고대한어 ‘能, 可, 可以’도 각각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가?

둘째, 고대한어에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能, 可, 可以’가 능력, 추정, 허가의 표시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면 분담의 실체는 어떠한가?

셋째, 고대한어 ‘能, 可, 可以’가 가능성을 나타낸다면, 각각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글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能, 可, 可以’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와 가능성이 실현되는 조건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 글은 〈孟子〉에 나오는 ‘能, 可, 可以’만을 다루기로 한다. 필자는, 〈孟子〉에 나오는 ‘能, 可, 可以’의 기능이, 고대한어 전체의 ‘能, 可, 可以’의 기능을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작성되는 이유는, 필자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한 권 한 권에 나오는 ‘能, 可, 可以’의 연구 결과가 모인 이후에야 이들에 대한 종합적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能’의 내부 조건 표시 기능

‘能’이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소유주는 누구이며, 그 능력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주의하며 다음을 보기로 하자.

(1) 寡人非能好先王之樂也, 直好世俗之樂耳。(梁下, 1장)¹⁾

1) 본고의 번역문은 차주환(2002)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필자의 생각으로 바꾼 부분도 있다.

과인이 선왕의 음악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속적인 음악을 좋아할 뿐입니다.

- (2) 吾不能進於是矣。(梁上, 6장)

나는 흥미해서 그 지경에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 (3) 爾焉能我哉?(萬下, 1장)

네가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 (4) 不嗜殺人者, 能一之。(梁上, 6장)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에서,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는 모두 사람이고, 능력이 발생하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能’의 능력은 주어의 고유 능력이다.

- (5) 孰能禦之?(梁上, 6장)

누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 (6) 莫之能禦也。(盡上, 16장)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5-6)의 능력의 소유주는 ‘孰, 莫’과 같은 의문대사인데, 이들도 모두 사람을 지칭한다. (5-6)에도 능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에는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가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 (7) 工師得大木則王喜, 以爲²⁾能勝其任也。(梁下, 9장)²⁾

도목수가 큰 나무를 얻게 되면 왕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가 자신의

2) ‘Ø’는 ‘能’의 주어가 위치할 자리임을 나타낸다.

임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 (8) (孟子)對曰不幸而有疾, 〇不能造朝。(公下, 2장)

(맹자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불행하게도 병이 나서 조정에 나갈 수 없습니다.”

- (9) 孟仲子對曰: 昔者有王命, 有采薪之憂, 〇不能造朝, 今病小愈, 趨造於朝, 我不識〇能至否乎。(公下, 2장)

맹중자가 (문병은 사람에게) “어제는 들라는 왕명이 있었으나 병이 나서 조정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병이 좀 나아서 서둘러 조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도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10) 詩云: ‘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牖戶, 今此下民, 或敢侮予.’

孔子曰爲此詩者, 其知道乎, 〇能治其國家, 誰敢侮之。(公上, 4장)

詩經에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에 앞서, 저 뽕나무 뿌리를 캐다가, 살창과 지게문을 단단히 엮었나니, 이제 이 백성들이 감히 나를 모욕할 수 있으랴’라고 하였는데, 공자께서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正道를 알고 있었을 게다. 자기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누가 감히 그를 모욕하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7)의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는 원래의 위치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 ‘工師’이다.³⁾ 이 경우에 능력의 발생조건은 ‘得大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건은 ‘工師’의 고유 능력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외부 조건이 아니다. (8)의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문맥으로 보아 화자인 ‘孟子’이다. 이 경우에 능력의 발생조건은 ‘有疾’이다. 그러나 이 조건은 孟子의 신체 내부에 존재하는 조건이므로 외부 조건이 아니다. (9)의 두 개의 ‘能’이 나타내는 능

3) 이 주어를 ‘나무’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나무’는 의인화되므로 본고의 논의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력의 소유주도 문맥으로 보아 모두 ‘孟子’이다. 이 경우에 능력의 발생 조건은 ‘有采薪之憂’이다. 그러나 이 조건도 (8)과 같이 孟子的 신체 내부에 존재하므로 외부 조건이 아니다. (10)의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는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으로 보아 詩의 작중화자인 ‘予’이며, ‘爲此詩者’이며, ‘其’이다. 능력의 발생의 조건은 시의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능력의 소유주가 이미 실행해온 것들이다. (7-10)은,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가 주어 위치에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맥으로 보아 그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는 모두 [+사람]이다. 그러나 다음의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

- (11) 孟子曰離婁之明, 公輸子之巧, 不以規矩, Ø不能成方圓, 師曠之聰, 不以六律, Ø不能正五音, 堯舜之道, 不以仁政, Ø不能平治天下。(離上, 1장)

맹자가 말씀하셨다. “離婁의 밝은 시력과 公輸子の 교묘한 기술로도 規矩를 쓰지 않으면 네모와 원을 만들지 못한다. 師曠의 예민한 청력으로도 六律을 쓰지 않으면 五音を 바로 다루지 못한다. 요임금과 순 임금의 道로도 仁政을 쓰지 않으면 천하를 화평하게 다스려내지 못한다.”

- (12) 天子之制, 地方千里, 公侯皆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凡四等。Ø不能五十里, 不達於天子, 附於諸侯, 日附庸。(萬下, 2장)

천자의 제도는 땅이 사방 천리, 공과 후는 모두 사방 백리, 백은 사방 70리, 자와 남은 사방 50리, 무릇 4등급이다. 50리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천자에까지는 연계를 짓지 못하고 제후에 부속되므로 이를 부庸이라고 한다.

(11)의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는 ‘離婁之明, 公輸子之巧, 師曠之聰, 堯舜之道’이다. 이 문장은 해석에 따라 ‘離婁, 公輸子, 師曠, 堯舜’을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로 볼 수도 있으며, ‘離婁之明, 公輸子之巧, 師曠之聰, 堯舜之道’를 도구격으로 보아, 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는 이 문장의 주어이다. 이 경우에 그 능력이 주어의 고유 능력인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 능력은 ‘規矩, 六律, 仁政’을 사용하는 조건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는 주어의 고유 능력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規矩, 六律, 仁政’을 사용하는 능력도 외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어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 능력도 결국 주어의 고유 능력이라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12)의 ‘不能五十里’는 ‘사방 50리의 토지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⁴⁾ 이에 의하면 ‘能’은 피수식어의 능력이 된다. 그러나 ‘사방 50리의 토지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은 基底構造에서 ‘사람이 사방 50리를 가질 수 없다’일 것이므로 역시 ‘能’은 주어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능력도 그 사람의 고유 능력이 된다.

다음은 추상명사가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이며, 동시에 주어인 경우이다.

4) 楊伯峻(2006: 236)은 ‘不能五十里’를 ‘토지가 사방 50리가 될 수 없는 국가’로 본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사방 50리의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앞에 나오는 公侯, 伯, 子男이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不能五十里’의 주어도 사람일 수밖에 없고, 둘째, 뒤에 나오는 ‘不達於天子’라는 행위와 ‘附於諸侯’라는 행위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으며, 셋째, ‘附庸’이 사람을 의미하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附庸’이 나라를 뜻한다면 ‘附庸國’ 혹은 ‘附庸之國’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 (13)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滕下, 2장)
부귀도 그의 마음을 혼란시킬 수 없고, 무력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게 되어야 그를 대장부라고 하는 거요.
- (14) 周于利者, 凶年不能殺, 周于德者, 邪世不能亂。(盡下, 10장)
이익을 추구하는 데 周到한 사람은 흉년도 그를 죽일 수 없고, 덕을 추구하는 데 주도한 사람은 사악한 세상도 그를 혼란시킬 수 없다.
- (15) 徒善不足以爲政, 徒法不能以自行。(離上, 1장)
한갓 선하기만 한 것으로는 정치를 하기에는 부족하고, 헛된 법도는 스스로 시행될 수 없다.
- (16) 耳目之官, 不思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此天之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不能奪也, 此爲大人而已矣。(告上, 15장)
귀와 눈이라는 기관은 생각하지 않고서 밖의 사물에 가리워진다. 밖의 사물이 보고 듣는 관능에 접촉되면 관능이 그것을 끌어당길 따름이다. 마음이라는 기관은 생각한다. 생각하면 사리를 알게 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리를 알게 되지 못한다.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을 비교해서 먼저 자기의 큰 것을 확립시켜 놓으면, 자기의 작은 것을 빼앗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람이 대인일 따름이다.
- (17) 有人於此, 力不能勝一匹羶, 則爲無力人矣。(告下, 2장)
여기에 어떤 사람이, 힘이 병아리 한 마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를 힘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孟子〉 전편을 통하여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가 명백히 추상명사인 경우는, (13-17) 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13)의 ‘富貴, 貧賤, 威武’가 위와 같은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인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14-17)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13-17)의 ‘能’이 나타내는 능력은 모두 주어의 고유 능력이다. (13-17)에는 능력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 제시

되지 않는다.

〈孟子〉에는 모두 135회에 걸쳐 ‘能’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검토에 의하면 위의 논의와 다른 내용의 ‘能’의 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能’이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사람]인 주어이다. ‘能’이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가 [-사람]인 경우에는 그것은 의인화된다. ‘能’이 나타내는 능력은 주어의 고유 능력이며, 이는 곧 주어의 내부 능력이다. 내부 능력은 주어의 의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외부 조건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내부 능력이란, 능력의 소유주가 소유한 능력이므로 이 능력의 발생은 소유주 자신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능력은 발생과 미발생의 경계만을 갖는다. 따라서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현 가능성은 완전하며, ‘不能’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 능력은 발생과 미발생의 경계만을 가질 뿐이므로 추정을 나타내지 못 한다. 실제로 〈孟子〉에서 ‘能’이 추정을 나타내는 기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能’과 ‘不能’은 능력의 발생과 미발생의 경계만 가지므로 허가를 나타내지 못 한다. 〈孟子〉에서 ‘能’과 ‘不能’이 허가를 나타내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3. ‘可’의 외부 조건 표시 기능

대부분의 虛詞詞典에서는 ‘可’의 대표적인 기능을 ‘가능’ 표시로 보고 있다.⁵⁾ 그렇다면 ‘可’가 나타내는 가능의 성격과 가능이 실현되는 조건을 알아보기로 하자.

5) 楊伯峻(2000: 93), 裴學海(1989: 365), 김원중(2003: 25) 등이 모두 이리하다.

- (18) 齊宣王問曰：齊桓晉文之事，可得聞乎？(梁上, 7장)

제선왕이 “제환공과 진문공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 (19) 曰王之所大欲，可得聞與？(梁上, 7장)

“왕께서 크게 원하시는 바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 (20) 曰然則王之所大欲，可知已。(梁上, 7장)

(맹자가) 말씀하셨다. “그러시다면 왕께서 크게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겠습니다.”

(18)에서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齊宣王이다. 齊宣王은 孟子에게 齊桓晉文之事를 들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 이는 곧, 齊桓晉文之事에 대하여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를 묻는 말이다. 그러므로 齊宣王이 이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맹자가 이를 말해주어야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가능성은 외부 조건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상황발생의 가능성이 외부 조건에 의한다는 문법적 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19)은 孟子가 齊宣王에게 묻는 말이다. 여기에서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孟子이다. 이 경우의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은 왕이 말을 해주어야만 발생한다. 따라서 이 가능성도 외부 조건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상황발생의 가능성이 외부 조건에 의한다는 문법상의 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발생의 가능성이 외부 조건에 의한다는 문법적 표지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문법적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하의 모든 경우에 공통된다. (20)의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도 孟子인데, ‘然則’을 보면 이 경우의 가능성도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조건에 의하여 발생된다. (18-20)은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가 [+사람]

으로서, 문장에 명백히 나타나거나 문맥으로 보아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가 주어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가 문장의 핵심이 아니라 ‘可’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황이 문장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은 외부 조건에 의하여 발생한다. 다음은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 (21) 使畢戰問井地, 孟子曰: 子之君將行仁政, 選擇而使子, 子必勉之。

夫仁政, 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均, 穀祿不平, 是故暴君汙吏必慢其經界, 經界既正, 分田制祿, 可坐而定也。(滕上, 3장)

畢戰을 시켜서 井田法에 대하여 물어보게 했는데, 맹자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선생의 군국께서는 仁政을 실시하시려고 사람을 골라서 선생을 보내셨으니, 선생은 반드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인정은 반드시 경계를 잡아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경계를 잡아놓는 것이 바르지 않으면 정전이 고르지 않고, 산출되는 곡식도 공평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군과 汚吏는 반드시 그들이 경계를 잡아놓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잡아놓는 일이 바로 되면 밭의 분배와 산출량의 제정은 가만히 앉아서 정할 수 있습니다.”

- (22) 王曰禮爲舊君有服, 何如斯可爲服矣。(離下, 3장)

왕이 “禮에는 전에 섬긴 임금을 위해 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여야 복을 입을 수 있게 됩니까?”라고 말했다.

- (23) 夫子當路於齊, 管仲晏子之功, 可復許乎? (公上, 1장)

선생님께서 齊나라의 요직을 맡아보신다면 管仲과 晏子が 세운 공적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24) 大而化之之謂聖, 聖而不可知之之謂神。(盡下, 25장)

위대하면서 감화시키는 것을 성스럽다 하고, 성스러우면서 알아볼

수 없는 것을 신령하다고 하는 거요.

滕文公은 신하인 畢戰을 孟子에게 보내 井地에 대한 사항을 묻게 하였다. (21)은 이에 대한 孟子의 답변이다. 이에 나오는 ‘可’의 가능성의 소유주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滕文公일 수도 있고, 畢戰일 수도 있으며, 모든 정치인 혹은 보편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⁶⁾ 이 경우의 가능성은 ‘經界既正’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발생한다. 이 조건은 ‘可坐而定’하는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부에 존재한다. (22)에서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왕 자신을 제외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의 가능성은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조건도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의 외부에 존재한다. (23)의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불분명하다. 이는 화자 자신일 수도 있으며, 齊나라의 백성일 수도 있으며, 齊王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齊王이 맹자를 등용해주어야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조건도 외부에 존재한다. (24)의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도 불분명하다. 이 경우에 ‘不可知之’하게 되는 원인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상이 너무나 神妙하여 인간의 인식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조건도 외부에 존재한다. (21-24)의 논의를 정리하면,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가 분명한 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고대한어에서 가능성의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을

6)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화된 ‘分田制祿’이라는 행위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동사 ‘坐’ 때문이다. ‘坐’라는 행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能’이 사람중심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반면에,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은 상황중심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能’은 능력의 소유주를 지시하지만, ‘可’는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지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孟子〉에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나타낸다. 상황의 발생가능성이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이다. 따라서 상황의 발생가능성은 추정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제 ‘可’가 추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 (25) 君子創業垂統，爲可繼也，若夫成功，則天也。(梁下，14장)

군자가 나라를 세워 국통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계승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는 것으로 말하면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 (26) 數罟不入洿池，魚鼈不可勝食也。(梁上，3장)

쭈쭈한 그물을 웅덩이와 못에 넣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어낼 수 없게 될 것이다.

- (27) 壯者以暇日修其孝悌忠信，入以事其父兄，出以事其長上，可使制梃，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梁上，5장)

장정들은 일 없는 날을 이용하여 효성과 우애와 충성과 신용을 배워, 집에 들어가서는 그것으로 부형을 섬기고, 밖에 나가서는 연장자와윗사람을 섬기도록 하신다면, 몽둥이를 들고도 진나라와 초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를 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28) 寡人恥之，願比死者，一洒之，如之何則可?(梁上，5장)

과인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치욕을 씻어 버리고 싶사운데 어떻게 하였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 (29) 王速出令，……，謀於燕衆，置君而後去之，則猶可及止也。(梁下，

11장)

왕께서는 속히 명령을 내리셔서 ……연나라의 대중들과 의논하여 임금을 세워 놓은 후에 그곳을 떠나신다면 오히려 제후의 공격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0) 舜爲法於天下, 可傳於後世。(離下, 28장)

순임금은 천하의 모범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다.

(25)의 의미를 살펴보면, 可繼할 수 있는 것은 君자의 능력이 아니라 天의 뜻에 의한다. 여기에서 ‘可’가 의미지향하는 것은 능력의 소유주가 아니라 繼라는 상황의 발생가능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君子創業垂統, 爲可繼也’는 ‘군자가 創業垂統 하는 것은, 나라가 이어져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可’는 추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可’가 나타내는 추정적 가능성은 ‘天’이라는 외부 조건에 의하여 발생한다. (26)에서 ‘魚鼈’을 모두 먹어낼 수 없다는 것은 추정이다. 실제로 먹어낼 수 있는 지 없는 지는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數罟不入洿池’라는 외부 조건이 성립하면 ‘不可勝食’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장의 핵심이 된다. (27)은 孟子가 梁惠王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의 핵심은 梁惠王이 ‘使制梃, 以撻秦楚之堅甲利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壯者以暇日修其孝悌忠信, 入以事其父兄, 出以事其長上’과 같은 외부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可’는 가능성의 소유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발생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使制梃, 以撻秦楚之堅甲利兵’이라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可’도 추정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28)은 ‘寡人이 어떻게

해야 一洒之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장이다. 따라서 寡人の 고유 능력이 문장의 핵심이 아니며, '어떤 정책을 펴는가'라는 외부 조건이 문장의 핵심이 된다. 이 경우의 '可'는 실제로는 '如之何則可一洒之'의 축약형이다. 그러므로 '可'는 '一洒之'라는 상황발생의 가능성, 곧 추정적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29)의 요지는, '速出命, ……', 謀於燕衆, 置君而後去之'와 같은 외부 조건이 성립해야만 제후들의 반발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可'는 '及止'라는 상황발생의 가능성, 곧 추정적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可'는 왕의 개인적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30)의 '可'는 '傳於後世'라는 상황발생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능성도 추정적 가능성이다. '後世'에는 孟子 이후의 시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의 발생 근거는 '爲法於天下'이다. 물론 '爲法於天下'는 '舜'의 고유 능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주장하는 핵심은, 그러한 '舜'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爲法於天下'라는 객관적 사실이다. '傳'의 행위자는 國人이다. 그러므로 '爲法於天下'는 國人에게는 외부에 존재하는 조건이 된다.

(25-30)을 보면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다. 가능성의 소유주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곧, '可'는 가능성의 소유주를 지시할 명백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성의 소유주를 지시하지 않는다면 '可'가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은 상황발생의 가능성일 수밖에 없다. '可'가 상황발생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건은 언제나 외부 조건이고, 외부 조건은 문장에 제시된다. 상황발생의 가능성은 많은 경우에 추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실제로 위의 '可'는 추정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可'의 다른 기능을 보기로 하자.

- (31) 臣弑其君, 可乎? (梁下, 8장)

신하가 자기의 임금을 살해해도 괜찮습니까?

- (32) 君子平其政, 行辟人, 可也。(離下, 2장)

군자가 정치를 공평하게 하면, 길을 가면서 사람을 피하게 하여도 좋을 것이다.

위의 ‘可’는 단독으로 사용되어 모두 상황 발생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허가로 인식된다. 허가의 내용은 ‘臣弑其君’과 ‘行辟人’으로서 ‘可’의 앞에 제시된다. (31-32)에서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은 외부 조건에 의하는 것이지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31)의 경우에 외부 조건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그 조건은 보편적 당위일 것이다. (32)에서 실현가능성의 조건은 ‘平其政’이다. 그러나 이는 문맥상의 외부 조건일 뿐, 외부 조건이라는 문법적 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 (33) 若曾子則可謂養志也。(離上, 19장)

증자 같은 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봉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34) 我由未免爲鄉人也, 是則可憂也。(離下, 28장)

나는 여전히 향리의 평범한 사람 노릇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근심할 만한 일이다.

(33-34)의 ‘可’도 허가를 나타내는데 허가의 내용은 자신의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는 모두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 (35)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 曰不可。(梁上, 3장)

“오십 걸음으로써 백 걸음을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양혜

왕이) 말하였다. “안되오.”

(36) 滕文公問爲國, 孟子曰民事, 不可緩也。(滕上, 3장)

등문공이 나라 다스리는 데 대하여 물었는데 맹자는 이렇게 말
씀하셨다. “백성들의일은 늦춰 놓아서는 안됩니다.”

(35-36)의 ‘可’도 허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不可는 不許가 된다. 不許의 내용은 (35)에서는 ‘不可’의 앞에 나타나며, (36)에서는 ‘不可’의 뒤에 나타난다. 不許는 허가되지 않는 것이므로 또한 당위 부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35-36)의 ‘可’는 허가를 나타낸다. 그러나 허가를 시행한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며 허가를 받은 주체도 분명하지 않다. ‘허가’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허가하다’와 같이 三價를 요구하는 술어인데, 이 가운데에서 ‘누가’와 ‘누구에게’의 二價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면 이 경우의 ‘可’는 허가되는 내용을 지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可’가 허가를 나타내는 경우에 그것은, 허가되는 내용을 지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孟子〉에는 ‘可以’를 제외한 ‘可’가 179회 사용되고 있다. 이들의 기능은 모두 이상의 논의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이상의 ‘可’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可’가 사용되는 문장에서,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명백하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可’는 의미적으로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를 지향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의 가능성을 지향한다. 상황 발생의 가능성은 언제나 외부 조건에 의한다. 외부 조건은 문맥상의 외부 조건일 뿐, 외부 조건이라는 문법적 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 발생의 가능성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추정 혹은 허가로 인식

될 수 있다.

4. ‘可以’의 외부 조건 명시 기능

이제 복합사 ‘可以’의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孟子〉에는 ‘可以’가 80회 출현한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현대한어에서 사용되는 ‘可以’는 아니다. 복합사 ‘可以’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以’의 賓語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可以’의 ‘以’는 介詞이다. 介詞라면 介詞賓語가 존재해야 한다. 介詞賓語는 원칙적으로 介詞의 뒤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以’의 賓語가 나타나는 위치는 다양하다.

이제 ‘可以’의 ‘以’의 賓語를 다루기 위하여, 먼저 단독의 ‘以’의 賓語의 위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以’의 賓語 위치 문제를 다루고 있는 胡曉萍(2000)이 제시한 예문이다.⁷⁾

(37) 其徒數十人皆衣褐捆屨織席, 以爲食。(滕上, 4장)

그의 도당 수십 명이 모두 거친 천옷을 입고, 짚신을 두드려서 삼고, 자리를 짜서 먹고 살았다.

(38) 其有不合者, 仰而思之, 夜以繼日。(離下, 20장)

그 중에 실제로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면 三王의 사적을 우러러 생각하는 데, 밤을 도와서 했다.

胡曉萍(2000: 2)는 (37)의 ‘以’의 賓語는 ‘衣褐, 捆屨, 織席’이며, (38)의 ‘以’의 賓語는 ‘夜’라고 본다. 이렇게 賓語를 전치시키는 이유는 賓語를

7) 그의 논문 가운데 ‘以+賓語’ 형식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賓語를 원래의 위치로 이동시키면 이러한 효과는 나타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음은 ‘以’의 賓語가 문장의 주어, 혹은 문장의 賓語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胡曉萍(2000: 3)은 이러한 위치에 존재하는 ‘以’의 賓語를 先行詞라고 부른다. 다음은 그가 제시한 예이다.

- (39) 父母之年, 不可不知也。一則以喜, 一則以愼。(論語, 里仁 21장)
부모의 연세는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기뻐지고,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두려워진다.
- (40) 壯者, 以暇日修其孝悌忠信, 入以事其父兄。(梁上, 5장)
장정들은 일 없는 날을 이용하여 효성과 우애와 충성과 신용을 배워, 집에 들어가서는 그것으로 부형을 섬기도록 한다.
- (41) 經德不回, 非以干祿也, 言語必信, 非以正行也。(盡下, 33장)
덕으로써 살아나가고 사악하게 굴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작록을 구하자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것이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행실을 바르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 (42) 王見之, 曰牛何之, 對曰將以饗鐘。(梁上, 7장)
왕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소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시기에, “이 소로 종에다 피를 바르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 (43) 問有餘, 曰亡矣。將以復進也。(離上, 19장)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남은 것을 또 차려 드리려는 것이었다.
- (44) 湯使遺之牛羊, 葛伯食之, 又不以祀。(滕下, 5장)
탕 임금은 사람을 시켜 그에게 소와 양을 보내주었더니 갈백은 그것을 먹어 버리고 또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胡曉萍(2000:3)은 (39)의 ‘以’의 賓語는 ‘父母之年’로서 문장의 주어이고, (40)의 ‘以’의 賓語는 ‘孝悌忠信’이며, 이는 문장의 賓語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41)의 ‘以’의 賓語는 ‘經德不回’와 ‘言語必信’이며, 이들은 문두로 이동하여 화제화되었다고 주장한다. (42-44)의 ‘以’의 賓語는 각각 ‘牛’, ‘餘’, ‘牛羊’인데, 이러한 先行詞가 생략되는 것은 언어의 경제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胡曉萍(2000:4)는 또한 ‘以’의 賓語는 습관적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45) 公都子不能答, 以告孟子。(告上, 5장)

공도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 한 것을 맹자에게 고했다.

그는 위의 ‘以’의 賓語는 앞 문장의 전반적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以’의 賓語는 ‘공도자가 답할 수 없었던 내용’이 된다. 이러한 賓語가 생략되는 이유를 그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언어의 경제원칙이며, 다른 하나는 이 경우에 賓語를 ‘之’와 같은 代詞로 나타내어 의미를 확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선진시기에 ‘以’는 代詞 ‘之’를 賓語로 취하는 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胡曉萍(2000:1)은 또한 ‘以’의 賓語가 생략되는 이유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 경우에 이를 문장에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고가 胡曉萍(2000)의 논의를 살펴본 이유는 첫째, ‘以’의 賓語를 찾아보는 작업을 익히기 위함이며, 둘째, ‘以’의 賓語의 속성을 알기 위함이었다. 그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될 수 있다.

첫째, ‘以’의 賓語는 ‘以’의 바로 뒤에 나오거나, 先行詞로 존재하거나, 혹은 앞 문장의 내용으로 존재한다.

둘째, 문장에 ‘以’의 賓語가 나오지 않으면,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상의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하면 ‘以’의 賓語는 문장 내에, 혹은 화자와 청자의 인식 속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 胡曉萍(2000)에 앞서 오영식(1996)도 일반적으로 賓語가 나타나지 않는 ‘有以’와 ‘無以’의 ‘以’의 賓語도 그 위치에서 생략되었을 뿐, 반드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以’의 賓語의 존재는 본고의 논의의 핵심이 된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고대한어의 ‘可以’의 기능을 찾아가기로 하자. 그러나 〈孟子〉에 나타나는 모든 ‘可以’가 복합사는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하기로 한다. 다음을 보자.

(46) 然, 不可以他求者也。(滕上, 2장)

그렇다. 다른 사람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다른 사람에게서 구해서는 안 된다.

(47) 恭儉豈可以聲音笑貌爲哉!(離上, 16장)

恭儉을 어찌 聲音笑貌로 얻을 수 있겠는가?

위의 (46)의 ‘以’의 賓語는 ‘他’이며, ‘不可’는 不許 혹은 당위 부정을 나타낸다. (47)의 ‘以’의 賓語는 ‘聲音笑貌’이다. 이와 같이 ‘以’의 賓語가 ‘以’의 뒤에 직접 출현하면, 이 문장은 ‘可+以+賓語+동사’형식이 된다. 이 경우에 ‘以+賓語’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되며, ‘可’는 단독으로 동사를 수식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可以’는 복합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可以’는 기능은 앞장에서 서술한 ‘可’의 기능을 갖는다.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가능성은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상황발생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제 ‘可以’의 ‘以’

가 자신의 뒤에 賓語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48) 然則, 小固不可以敵大。(梁上, 7장)

그렇다면 작은 나라는 근본적으로 큰 나라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49) 今日我疾作, 不可以執弓。(離下, 24장)

오늘 나는 병이 나서 활을 잡을 수 없다.

(50) 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離上, 8장)

창랑의 물이 맑으니, 그 물로 나의 갓끈을 씻을 것이다.

(48)의 ‘以’의 賓語는 ‘小’이며, (49)의 ‘以’의 賓語는 ‘我疾作’이며, (50)의 ‘以’의 賓語는 ‘滄浪之水’이다. 이러한 賓語는 ‘以’와 가까운 앞 부분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可以’도 복합사가 아니다. (48)에서는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며, 상황발생의 가능성이 부정되고 있다. (49)의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我’인데, 문장의 핵심은 ‘我’가 아니라 ‘執弓’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50)의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可’는 ‘滄浪之水清’이라는 외부 조건에 의한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나타낸다.

(51)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梁上, 3장)

다섯 이랑의 택지에다가 뽕나무를 심으면 50대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명주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52) 無罪而殺士則大夫可以去。(離下, 4장)

죄 없이 士를 죽이면 大夫가 그 나라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53) 地方百里而可以王。(梁上, 5장)

땅이 사방 백 리가 되면 그것으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1)의 ‘以’의 賓語는 ‘桑’이며, (52)의 ‘以’의 賓語는 ‘無罪而殺士’이고, (53)의 ‘以’의 賓語는 ‘地方百里’이다. (51-53)의 ‘以’의 賓語는 ‘以’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와 같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可’도 복합사가 아니다. (51)의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외형상 ‘五十者’이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五畝之宅, 樹之以桑’이라는 외부 조건이 주어짐에 따라 ‘五十者’에게는 명주옷을 입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52)의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외형상의 소유주는 ‘大夫’이다. 그러나 그의 능력에 따라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無罪而殺士’라는 외부 조건이 주어지면 그가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53)의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분명하지 않다. 맹자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53)의 요점은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가 아니라 ‘地方百里’라는 외부 조건이 주어지면 왕노릇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54) 如此然後可以爲民父母。(梁下, 7장)

그렇게 한 후에야 백성들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5) 不得乎親, 不可以爲人。(離上, 28장)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 하면 사람이 될 수 없다.

(56) 孟子曰不挾長不挾貴不挾兄弟而友, 友也者, 友其德也, 不可以有挾也。(萬下, 3장)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많은 것을 개제시키지 않고, 존귀한 세도를 개제시키지 않고, 형제의 힘을 개제시키지 않고 벗을 사귈다. 벗 사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덕을 벗으로 사귀는 것이므로, 벗함으로써 그 사이에 개제시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54)의 ‘以’의 賓語는 ‘如此’이며, (55)의 ‘以’의 賓語는 ‘不得乎親’이고, (56)의 ‘以’의 賓語는 ‘友’이다. 이러한 賓語는 모두 앞 문장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賓語가 명백하게 존재하므로 이 경우의 ‘可以’도 복합사가 아니다. (54)의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대화의 상대자인 齊宣王이다. 그러나 이를 보편적인 왕이나 사람이라고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문장의 핵심은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가 아니며, ‘如此’와 같은 외부 조건이 주어지면 ‘백성의 부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56)에는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장의 핵심은 ‘以友有挾하는 행위가 불허’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57)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公上, 2장)

벼슬을 살 만하면 벼슬살이를 하고, 그만두어야 할 계제가 되면 그만두고, 오래 머물러 있을 만하면 오래 머물러 있고, 빨리 떠나야 할 계제가 되면 빨리 떠나가는 것이 공자였네.

(58) 可以死, 可以無死, 死, 傷勇。(離下, 23장)

죽을 만도 하고 죽지 않을 만도 한데 죽으면 용기를 해친다.

(59) 如使人之所欲莫甚於生, 則凡可以得生者, 何不用也?(告上, 10장)

만약 사람이 원하는 것에 사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면, 무엇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무슨 방법인들 쓰지 않겠는가?

(57)의 ‘以’의 賓語는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57)의 의도는, 어떠한 기준으로 관직 생활을 하며, 어떠한 기준으로 관직을 물러나고, 어떠한 기준으로 오래 머물며, 어떠한 기준으로 속히 떠나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이 孔子라는 것이다. 그 기준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공자에게 그것은 존재하고, 그

것은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57)의 요지이다. (57)에서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외형적 소유주는 孔子이다. 이 경우의 ‘可’는 ‘以’의 생략된 賓語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58)의 ‘以’의 賓語도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죽어야 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죽지 않아야 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죽어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상황에 어떠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⁸⁾ (58)은 그러한 기준을 독자가 알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58)의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의 ‘可’가 나타내려는 것은, ‘以’의 賓語인 외부 조건에 의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다. (59)의 ‘以’의 賓語도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59)은 살 수 있는 방법을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 (59)의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소유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모든 사람일 것이다. 이 경우의 ‘可’는 ‘以’의 賓語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실현되는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나타낸다.

(57-59)과 같이 문장에 ‘以’의 賓語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의 ‘可以’를 복합사라고 본다. 그러나 위의 논의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以’의 賓語는 묵시적 암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묵시적 암시적으로 존재하는 ‘以’의 賓語의 성격은 무엇일까? 앞에서 인용한 胡曉萍(2000:1)에 의하면, 이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장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과 종합하면, 생략된 ‘以’의 賓語는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

8) 맹자는 이 기준이 仁과 義라고 주장할 것이다.

는 것이거나, 알아야 하는 것이거나,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다양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은 결국 화자와 청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당위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고는 ‘可以’의 기능을 논의하여 왔다. 이에 의하면 ‘以’의 賓語는 문장 내에 존재하든, 화자와 청자의 인식 속에 존재하든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 賓語의 지시내용에 의하여 ‘可’가 나타내는 가능성이 실현된다. 따라서 ‘可以’가 나타내는 가능성은, ‘以’의 賓語의 지시내용, 즉 외부 조건에 따라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以’의 기능이 명백하므로 ‘可以’의 ‘以’는 언제나 독립적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可以’가 복합사이거나 아니거나에 관계없이 그 기능은 ‘可’의 기능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可’가 ‘以’를 대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다시 검토하여 보자. 이를 위하여 위에서 논의한 예문을 다시 보기로 하자.

(18) 齊宣王問曰: 齊桓晉文之事, 可得聞乎?(梁上, 7장)

(19) 曰王之所大欲, 可得聞與?(梁上, 7장)

(31) 臣弑其君, 可乎?(梁下, 8장)

(32) 君子平其政, 行辟人, 可也。(離下, 2장)

위 문장의 ‘可’는 모두 외부 조건에 의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외부조건임을 명시하는 문법적 표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31)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 조건이 제시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可’의 가능성이 외부 조건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할 때의 외부 조건은 문맥의 파악에 의하여 얻어진다. 그렇다면 ‘可以’의 ‘以’의 본질적 기능은 무엇일까? 이는 ‘可’의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賓語로 표시되는 외부 조건이 필

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可以’의 가능성 표시기능은 결국 ‘可’의 기능과 동일하게 된다. 다만 이에는 상황의 발생을 위해서는 외부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문법적 표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외부 조건은 문장에 제시되기도 하지만 생략되기도 한다. 생략된 외부 조건은 문맥에 존재하기도 하며, 중국인의 인식 속에 존재하기도 한다.

5.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能, 可, 可以’의 기능을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能’이 나타내는 능력의 소유주는 주어이며, 주어는 사람이다.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의인화된다. ‘能’이 나타내는 능력은 주어의 고유 능력이며, 이는 곧 주어의 내부 능력이다. 내부 능력은 주어의 선택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외부 조건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내부 능력이란, 능력의 소유주가 원천적으로 소유한 능력이므로, 이 능력은 발생과 미발생의 경계만을 갖는다. 따라서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현 가능성은 완전하며,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 능력은 발생과 미발생의 경계만을 가질 뿐이므로 추정과 허가를 나타내지 못 한다. 실제로 〈孟子〉에서 ‘能’이 추정이나 허가를 나타내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2. ‘可’가 사용되는 경우에 그 가능성의 소유주는 문장에 제시되기도 하지만,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혹은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可’가 가능성의 소유주를 지시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의 가능성을 지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 발생의 가능성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나 외부 조건에 의존한다. 그러나 외부 조건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 조건은 문맥에 존재하거나 중국인의 인식에 존재한다. 상황 발생의 가능성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추정 혹은 허가로 인식될 수 있다.

3. 介詞 ‘以’의 賓語는 문장에 존재하든, 화자와 청자의 인식 속에 존재하든, 반드시 존재한다. ‘可以’의 ‘以’도 이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可以’의 기능은 ‘可’와 ‘以’의 기능이 합쳐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可以’는 가능성의 소유주를 지시하지 않고 상황발생의 가능성을 지시하며, 상황발생은 ‘以’의 賓語로 나타나는 외부 조건에 의한다. 이 경우에 ‘以’는 외부 조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문법적 표지로 기능한다. 따라서 ‘可以’는 ‘可’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다만 ‘可以’는 상황의 발생을 위하여 외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법적 표지를 갖는다. 이 문법적 표지에 따라 ‘可以’의 세계에는 언제나 외부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에 의하면 고대 중국인은, 개인적 능력과 같은 내부 조건에 의하여 실현되는 가능성과 외부 조건에 의하여 실현되는 가능성을 구분하는 사유형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내부 조건과 외부 조건을 구분하는 중국인의 사유형식이 가능성 이외의 다른 문법 현상에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또한 현대한어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제현의 연구를 기다리기로 한다.

이 연구는 〈孟子〉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서적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본고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필자는 이러한 각각의 연구 결과가 모여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유도되기를 진심을 다하여 기대하고 있다.

參考文獻

- 김원중, 《虛詞大辭典》, 현암사, 2003.
- 오영식, 〈고대중국어 ‘有以’, ‘無以’의 구문 분석〉, 《中國文學》 26輯, 1996.
- 차주환, 《孟子》, 명문당, 2002.
- 潘玉坤, 〈古漢語中‘以’的賓語前置問題〉, 《殷都學刊》, 2000.
- 郭錫良, 〈介詞‘以’的起源和發展〉, 《古漢語研究》 第38期, 1998.
- 胡曉萍, 〈《論語》《孟子》中介詞‘以’用法之分析〉, 《綏化師專學報》, 2000.
- 裴學海, 《古書虛字輯釋》, 廣文書局, 1989.
-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2000.
- , 《孟子譯註》, 中華書局, 2006.

中文摘要

本文研究的主題是關於‘能, 可, 可以’的功能研究。三者雖然都表示可能性, 但是筆者認為其可能性的實現條件各不相同。本文的主要內容如下:

一、‘能’所表現出的可能性的所有者是主語, 且其主語是人。如果主語不是人, 那麼則是被擬人化的。‘能’所表現出的能力是主語的固有能力的, 也就是其內部能力。內部能力是在主語的意願下實現的, 外部條件並不是必要的。內部能力是指能力的所有者原本所持有的能力, 所以其能力的發生只取決于所有者本身, 這種能力只有發生與未發生之分。如果持有這種能力, 其實現可能性就是百分之百, 不可能會有‘不能’的實現。由於這種能力只有發生與未發生之分, 所以不能表現推斷與許可。而實際在〈孟子〉中, ‘能’也沒有表現推斷或許可的情況。

二、在使用‘可’的文章里, 其可能性的所有者可出現, 也可不出現, 所有者是誰並不分明或沒有提示的情況也會有。這說明‘可’在意義上並不指向可能性的所有者, 而是指向狀況發生的可能性。狀況發生的可能性一向取決于外部條件, 但不存在表現外部條件的文法標志, 其外部條件體現在文脈中或中國人的認識里。根據不同的視覺角度, 狀況發生的可能性也可表現推斷或許可。

三、介詞‘以’的賓語如不存在於文章內, 就一定存在於說話者和聽者的認識里, 總之必須存在。‘可以’的‘以’也有與此相同的功能。所以‘可以’的功能可以說是上述‘可’與‘以’的結合體。總結來說, ‘可以’指向的並不是可能性的所有者, 而是狀況發生的可能性, 而狀況發生取決于‘以’的賓語所表現的外部條件, 這時, ‘以’就是表現外部條件必須存在的文法標志。

綜上所述，可以得出以下結論：古代中國人具有將可能性區分為取決于個人能力等內部條件的可能性與取決于外部條件的可能性的思維方式。筆者認為區分內部條件與外部條件這一中國人的思維方式必定在可能性以外的其他文法現象中有所體現，同樣也作用于現代漢語里。

關鍵詞：‘以’，‘可以’，‘能’，介詞，助動詞，古代漢語語法，可能，能力，所有者，內部條件，外部條件，可能性的種類，‘以’的賓語